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25일 화요일 음 7월 13일 (5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10%
10%	성 산	10%
10%	고 산	10%
1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6/34℃
모레	흐리고 비	26/33℃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6~27℃, 낮 최고기온은 31~34℃로 예상된다. 당분간 무더위·열대야가 이어지겠으며,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에 유의해야겠다.

	해뜸 06:03 해짐 19:09		달뜸 17:35 달짐 02:48
물때	만조 08:58 22:08		간조 04:05 15:24

자외선지수	산불위험지수
매우높음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젤렌스키 "전시에 선거 치르면 우크라 분열"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에 반박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35주년을 이틀 앞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전쟁 상황에서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미하일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내놓은 전시 선거 요구를 공개적으로 일축한 발언이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당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장기전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무인항공기를 앞세운 전쟁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다가 지난달 돌연 해임됐으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불러왔다.

2019년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5월로 5년의 임기가 종료됐어야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내려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건너뛴 채로 계속 재임 중이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바다를 살려야

김 성 은
전 제주도 국제관계대사·전 브루나이 대사

제주도의 인구와 땅은 우리나라 전체의 1.3%와 1.84%에 불과하나, 제주 해역이 영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5%에 달한다. 제주도의 가치가 바다에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이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제주인은 섬을 배경으로 해민(海民)으로서 살아왔다. 칠성굿이며, 좀녀(潛女)라든가 탐라선이 그런 예들이다. 무역선의 뱃주인이었던 여성 CEO 김만덕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학창 시절 종종 불렀던 '제주도의 노래'를 보면, '한라의 장한 기상 바다로 뻗고'로 시작하며, 2절에는 구체적으로 '넓푸른 바다에는 풍부한 어장'과 '끝없는 수산자원 개발하여 풍요로운 제주도를 만들어내자'라고 해 제주의 정체성이 바다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주 바다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야말로 참담하다. 바다의 사막화라는 백화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돼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루기엔 너무 벅차거나 장기간이 소요되어 도내 정치인들의 재임기간 중에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도민과 도정, 도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장·중·단기별 대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백화현상을 초래한 원인들은 다양하다. 과다한 비료 사용, 생활하수의 바다 유입, 육상 양식장들의 잘못된 해수 사용 관행, 일부이지만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큰 양돈장들의 분뇨 배출 등이다. 이처럼 원인이 다양한 만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한번 세계지도를 거꾸로 보자. 그러면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해양 전초기지가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리더십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제주를 해양수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 해양 레저산업을 키우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국제적 수준의 친환경 마리나(Marina)를 조성하여 해양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많이 보강했으면 좋겠다. 기후변화에 따라 바다가 이미 아열대에 진입한 점을 고려해서 대만이나 동남아 지역과 인적 교류 및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열대 어류 및 수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제주 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해 보기 바란다.

더불어, 도내 해양과학대학이라든가 해양레저학과를 적극 육성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력 인프라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업 육성을 이들 젊은이들의 취업과 연계시킨다면 그 실효성은 더욱 확보될 것이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바다를 되살려야 한다. 덤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더위가 주춤할 때 더 필요한 농작업 안전

진 동 협
제주도농업기술원 지방농촌지도사

지난 주말 비가 내리면서 계속되던 폭염이 다소 누그러졌다. 하지만 아직 온열질환에 대한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다. 최근에도 도내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농업 분야에서도 환자가 나오고 있어 농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도 제주 농업 분야에서는 9월 중순까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한여름이 지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시기에도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늦더위가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고 밭이나 시설하우스에서는 높은 습도와 햇볕, 작업 강도 등에 따라 몸이 느끼는 더위가 클 수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더 주의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위에 대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고 갈증이나 몸의 이상을 늦게 느낄 수 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요원, 농업인 안전리더, 농작업 안전관리자 등을 활용해 농업현장을 찾아 예방수칙을 알리고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며 무더운 시간대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은 가급적 혼자 작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혼자 작업할 경우 작업 장소와 귀가 시간을 가족에게 알려두고 가족들도 농작업에 나선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귀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삶에 활기를 더하는 곳,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이 선 주
서귀포시 노인복지팀장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나이를 숫자로 생각하지만, 나이 듦은 살아온 시간만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복지 공간이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소를 넘어 평생교육과 취미·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서귀포시에서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1개소 운영되고 있다. 매년 2500명의 어르신이 40여 개의 교육·취미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170명의 어르신께서 경로식당 및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여 건강을 돌보고 있다.

서귀포시노인복지관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도 가요 교실, 웰빙댄스, 스마트폰 활용 등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내 인생 책 한 권 쓰기, 필라테스 등 어르신들의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노년의 삶은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배움과 만남, 작은 목표를 세우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간다.

오늘도 배울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으며, 즐겁게 참여할 일이 있는 삶, 나이 듦이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삶에 따뜻한 동행자가 되기를 기대한다.